

I. 들어가는 말

오늘 한국사회는 극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다. 좌파와 우파의 극단적 대립의 구도를 따라 국민들은 거의 정확하게 반분되어 가정과 직장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반목을 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다. 그 깊은 골짜기를 따라 지역감정과 남녀간의 골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 있다. 경제적으로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1:99의 사회로 갈려 있으며 그 경제적 골도 더욱 깊어져가고 있어 거대한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거기에 시대의 정신인 개인주의적 인본주의나 개인주의적 포스트모던주의, 그리고 코로나 19사태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모든 공동체적 담론들을 거부하게 만들고 대면적 모임을 거부하게 하면서 고립된 개인으로 몰아가고 있다.

좀 더 크게 보면 남북한의 관계의 골은 그 무엇보다 깊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는 이제 핵전쟁의 양상으로까지 대립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북한 사회를 들여다보면 그들 가운데서도 깊은 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평양과 지방 사이의 깊은 정치적, 경제적 골짜기가 있으며, 국가존립을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에 올인하는 가운데 국가경제는 파탄나고 있으며 국민들은 굶주림 속에서 쓰러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사회, 극단적으로 개인화된 사회에 바람직한 공동체성을 다시 소개할 수 있을까? 갈등을 줄이고 증오와 대립의 거대한 힘들을 순화시키며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논문은 기독교가 가진 공동체성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기독교적 공동체성이 이 갈라진 시대를 치유하는 약이 될 수 있는지, 그 약효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를 가능해 보고자 한다. 이 담론은 기독교적 공동체성의 출발점인 삼위일체로부터 시작한다.

II. 기독교적 공동체성의 원형인 삼위일체 공동체성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기독교의 삼위일체(三位一體, Trinity) 교리는 언제나 지성인들에게 이해의 어려움을 주어 왔다. 비기독교인들에게 이 교리는 기독교의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져 왔으며,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교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여겨져 왔다.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며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이 모두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신비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교회를 보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계승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들과 그의 행적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었다.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절기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또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기독교 교리의 근거가 되는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성경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담고 있다. 신학자 존 메츠거(John Metzger)에 따르면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elohim)이라는 복수형 명사를 포함하여 복수의 동사, 복수의 형용사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구약성경이 엘로힘과 야훼(Yahweh)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삼위일체의 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들(shechinah)과 같은 복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나 구원자(Messiah)를 신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기도 하다.¹⁾

신약성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표현들이 다수 존재한다. 신학자 아서 웨인라이트(Arthur Wainwright)는 신약성경에서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한다. 첫째,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7개의 구절들이 있다. 둘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칭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다. 셋째,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표현들이 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분으로 기록되고 있다. 다섯째, 그리스도가 창조자로 기록되어 있다. 여섯째는 신약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²⁾

삼위일체가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로 확정된 것은 서기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개최된 교회 공의회에서 성령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결의와 함께 이뤄졌다. 신학자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바질(Basil the Great), 닛사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 나지안주스의

1) John B. Metzger, *The Tri-unity of God is Jewish*, Angier: Jewish Awareness Ministries, 2006.를 보라

2) Arthur W. Wainwright, *The Trinity in the New Testament*,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1.를 보라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와 같은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과 성령님의 신성을 옹호하고 변증했다. 그들이 정리한 삼위일체 교리의 정의는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다. 당시의 그리스어 용어로는 하나님은 하나의 본성(ousia)과 세 위격(hypostasis)을 갖는다고 표현하며, 라틴어로는 하나님은 하나의 실체(substantia)와 세 위격(persona)을 갖는다고 표현한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참여한 전체 교회 대표들이 이를 공인했고, 그 이후로 오늘날 정통적인 모든 교회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으며 공식적으로 고백한다.

삼위일체의 교리가 강조하는 것은 삼위의 인격적 주체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삼위성과 일체성에 대한 동시적 인정과, 삼위와 일체간의 완벽한 균형이다. 삼위성과 일체성에 대한 동시적 인정과 균형을 거부하거나 깨뜨리는 입장들을 정통교회는 이단으로 정죄해 왔다.

예를 들면 4세기 경 교회의 장로였던 아리우스(Arius)는 하나님의 일체성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삼위성을 거부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한 것이다. 그의 주장은 고대 교회에 큰 혼란을 일으켰으나 위에서 소개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마침내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아리우스주의를 현대에 받아들인 것이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들이다. 이들 역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임을 주장하며, 성령의 인격성이나 신성을 부정하면서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여 이단으로 정죄되고 있다. 몰몬교(Mormons, 말일성도그리스도교회,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의 경우에는 아리우스주의나 여호와의 증인과 반대로 하나님이 여럿이라고 하는 다신교를 주장하고 있다. 정통 교회에서는 이들 또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이 삼위일체 교리를 새롭게 이해하면서 이해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기독교 신학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들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를 단지 불가해한 신비로 생각하는데 머물지 않고, 성경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이 교리를 새롭게 설명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신학적 노력이 사회적 삼위일체론(Social Trinitarianism)이다. 사회적 삼위일체론 신학자로는 위르겐 몰트만(Jurgen Moltmann), 레오나르도 보프(Leonardo Boff),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 엘리자베스 존슨(Elizabeth Johnson), 존 지지올러스(John Zizioulas), 코르넬리우스 플랜팅가(Cornelius Plantinga) 등이 있다. 이들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질, 닛사의 그레고리,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등 동방교회 교부신학자들의 신학적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사회적 삼위일체론 신학은 그동안 로마교회를 중심으로 한 서방의 카톨릭교회에서 발전되어온 삼위일체 신학이 하나님의 일체성에 집중한 나머지 세 위격을 소홀히 한 것을 반성한다. 동시에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콘스탄티노플교회를 중심으로 한 동방 정교회 신학의 전통이 강조해 온 것처럼 세 위격으로부터 출발하여 일체성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삼위일체

론은 삼위일체 교리를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이 교리에 대한 신학적 설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체성을 실제적 일체로 보지 않고 공동체성으로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 위격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신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계시다는 것이다.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 위격은 각각 건강하고 구별되는 인격적 주체성을 가지고 계시며, 이 세 위격들이 하나의 나눌 수 없는 공동체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 위격의 개별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삼신론(tritheism)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다. 삼신론은 세 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관점으로,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 하나님의 일치성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삼신론의 위험에 대해서 사회적 삼위일체론자들은 다양한 대답과 해명들을 제시한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삼신론 혹은 다신론은 신들 간의 불화와 경쟁을 보여주고 있으나, 성경이 보여주는 세 위격의 관계는 철저하게 사랑과 화합과 순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신교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⁴⁾ 역사상 다양한 종교의 신과는 달리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인격은 특별한 관계적 본성을 가지고 계시며, 이를 통해서 서로는 인격적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 인격적 상호관계성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사랑은 다른 인격을 향하여 나의 인격을 개방하며 다른 인격을 섬기며, 두 인격이 내면적으로 결합되며 이러한 본질적 관계성 속에서 각 인격은 참된 자신의 본질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

3) 이 점에서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공동체적 삼위일체론(communal trinitarianism)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표현이 사회라는 표현보다 훨씬 교제와 연합의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4) Cornelius Plantinga, "Social Trinity and Tritheism," *Trinity, Incarnation and Atonement: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Essays*, edited by Ronald J. Feenstra and Cornelius Plantinga,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9, 37-53. 플랜팅가는 사회적 삼위일체론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 반박하는 다양한 설명들을 제시한다.

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속성이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윤리의 핵심인 사랑을 묘사하는 이 유명한 성경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한다. 첫째는 사랑이 인간이 가진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나 활동과도 다른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사랑은 인간이 자기중심의 판단이나 활동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과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사랑은 인간이 가진 본성과 지식들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맞닿아 있다는 인식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랑은 인간이 가진 본질이며, 그 내용은 타인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위 본문에서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가 서로에 대해 바로 이러한 헌신과 섬김의 연합을 이루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명확하고 담대히 증거한다.

둘째로, 사회적 삼위일체론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러한 사랑의 존재방식이 세속적인 존재론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방식임을 지적한다. 삼위일체가 보여주는 세 위격의 독립성과 상호성은 주체성과 관계성에 관한 과거와 현대의 개념들을 넘어서는 독특한 것이라는 것이다. 정교회 (orthodox church) 신학자 지지울러스는 이 점에 대해서 탁월한 신학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⁵⁾ 그는 최고의 존재를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substantia)로 보았던 그리스철학과 달리 기독교는 최고의 존재를 인격(persona)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실체는 독립성을 그 본질로 하는 반면, 인격은 관계성을 그 본질로 한다. 그는 기독교가 인격을 궁극적인 존재의 개념으로 제시함으로써, 물질적이고 독립적인 형이상학에 빠져 있었던 그리스철학에 혁명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교리가 제시하는 삼위와 일체는 물질적이고 독립적인 일자들의 외연적 집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인격들의 본성적 연합이라는 것이다.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Alfred North Whitehead)도 근대철학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지지울러스와 동일한 관계적 존재론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화이트헤드에

5) John Zizioulas, *Being as Communion*, New York: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97.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Alfred North Whitehead)도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가 존재 안에 있는 복수성(multiplicity)을 주장함으로써 형이상학적 진보를 이루었다고 인정한다. Alfred North Whitehead, *Adventures of Ideas*, New York: Free Press, 1967. 168.

의하면 실체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존재이해는 유럽의 근대과학과 근대철학에서 주류가 되었으며, 그 결과로 이원론에 빠지게 되었다. 하나의 독립적 실체인 인간정신과 또 다른 독립적 실체인 물리적 세계를 인정함으로써, 이들 실체간에 아무런 본질적 관계성의 근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인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발생시켰다. 인식의 주체인 정신과 인식의 대상인 세계와의 사이에서도 아무런 본질적 관계성을 제시할 수 없는 인식론적 회의론(懷疑論)이나 유아론(唯我論, solipsism)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실체론적 사고가 형이상학적, 인식론적 이원론(dualism)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근본적인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원론적이며 관계론적이고 유기체적인 존재론과 인식론을 요청하며 그 자신이 관계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실재(現實在, prehension)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다.⁶⁾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기독교적 공동체성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지지울러스와 화이트헤드의 철학적 주장들과 제안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공동체성은 서양철학이 가정해 온 것처럼 최고의 존재를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substance)라는 세속적이고 독립적인 존재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관계적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제시하는 존재의 개념인 인격은 타자와의 관계성을 본질로 하는 존재를 표현하기 때문에 실체적인 존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인격으로서의 삼위는 서로 구별되고 독자적인 인격성을 가지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인격과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인격은 다른 인격 안에서 비로소 자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처럼 다른 인격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이 되는 인격이다.⁷⁾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존재방식을 일자(一者), 타자(他者), 다자(多者)와 같은 전통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삼위일체론은 인격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론적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삼위일체는 새로운 존재론의 길을 제시한다는 지지울러스의 관찰은 타당하다.⁸⁾

6) 화이트헤드는 *Process and Reality* - corrected edition (New York: Free Press, 1979) 에서 자신의 관계론적, 유기체적 철학을 집대성한 하나의 우주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화이트헤드가 1927-1928년 기포드 강연에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7)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인격이라는 인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위격(位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나님의 위격은 인간이 가진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인격의 원형이 되는 것이지만, 인간의 인격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한 인격성과 신비를 포함하고 있다. 필자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위격이 가진 인격적 본질을 드러내고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8) 이러한 관계적 존재이해는 우리에게 낯선 것은 아니다. 동양에서는 존재에 관한 관계적 사고의 전통이 있어 왔다. 음과 양의 조화의 사상이 좋은 예가 된다. 또한 유교적 전통에서 인간은 철저히 사회적 존재로써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한자인 인간(人間)의 의미가 바로 그러하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며 서로에게 의존하는 "사이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교적 관계성이 지닌 한계는, 그것이 비인격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성이라는 한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삼위일체가 보여주는 사랑의 공동체성은 일체성과 함께 삼위의 인격적 개별성과 자발성과 주체성을 지키는 반면, 유교적 공동체성은 군신유의(君臣有義) 장유유서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세 인격의 본질적인 관계성과 세 인격 간의 이러한 사랑의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한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이것이 그리스어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라는 단어이다. “페리”는 주위에, 둘러, 에워싸다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이며, “코레시스”는 담다, 포용하다, 침투하다,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페리코레시스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 상호내재(相互內在) 혹은 상호침투(相互浸透)을 가지고 있다. 라틴어로는 circum-incessio, 영어로는 co-inherence, mutual penetration 혹은 mutual indwelling으로 표현할 수 있다. 페리코레시스의 삼위일체론적인 의미는 “세 위격들의 결합과 연합 혹은 내적으로 교통하는 상태 또는 행위”이다.⁹⁾ 다시 말하면 페리코레시스는 인격적 존재자들이 내면적으로 서로 결합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관계적 행위를 통해 본질적으로 서로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삼위일체의 위격들의 사회성과 관계성을 페리코레시스로 이해할 때 우리는 나눌 수 없이 결합되고 본질적으로 연결된 인격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인가? 혹은 셋인가? 하는 산술적인 물음이나 주체인가? 혹은 타자인가? 하는 실체론적 논리가 적용될 수 없는, 내면적 관계성을 통한 공동의 존재방식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 속에서 페리코레시스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시는지를 증거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삼위일체의 존재양식을 인간을 향해서 개방하셨다. 이 창조과정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하신 자유를 내려놓고 자신을 비움으로 피조물과의 관계성에 참여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성과 자유로부터 피조물인 인간에게 개별성과 자유와 사랑의 능력을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인격적 교제의 관계성으로 들어오셨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인격적이고 페리코레시스적 교제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확인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개별성과 자유를 존중하심으로 그들의 선택을 인정해 주셨다. 인간이 본질적 관계성을 추구하는 공동체적 존재방식을 버리고 자신들의 독립적이고 이기적인 권력을 추구함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고통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다시 한 번 자신의 관계적 사랑을 실천하셨으며,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스스로를 희생하셨다. 성령 하나님 역시도 인간에게 임재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을 도우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인간을 위해 중보기도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長幼有序), 남존여비(男尊女卑) 등의 규율과 같이 권위주의와 결합되어 일체성의 가치에 함몰되는 경향을 보인다. 서양에서도 마르틴 부버(Martin Buber)처럼 대화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거나, 최근에는 근대철학의 과도한 주체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타자 중심성과 타자에 대한 환대를 강조하는 다양한 철학적 주장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들 역시도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제시하는 참된 관계적 인격성과 사랑의 공동체성에 미치지지는 못한다고 생각된다.

9) 김석환, 『삼위일체론과 성령론』, 한국학술정보, 2007, 218.

삼위일체가 가진 페리코레시스적 본성을 인간에게 연장시켜 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III. 삼위일체 공동체성의 현실적 모델인 인간의 공동체성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가지신 사랑의 존재양식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도 부여주셨고, 또 물려주셨다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의 증언을 들어보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존재양식을 인간에게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다. 본문은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식의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본문은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이며, 사랑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제시한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신적 교제를 열어서 인간들에게 그 완전한 사랑을 부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그 야기페의 교제 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신학자 몰트만이 발견하는 삼위일체론적 구원이해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교제 안으로 초청받고 있으며 종말에 우리는 그것의 완전한 실현을 보게될 것이다.¹⁰⁾

성경은 더 나아가서 사랑을 인간이 추구하고 실천해야할 윤리의 근간임을 명확히 가르치고 있다. 마태복음 22:37-40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0) Jurgen Moltmann, *Trinity and the Kingdom* (trans. by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양식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서도 요구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율법과 윤리의 본질이자 최고의 목적임을 명확히 하셨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예수님의 이 두가지 사랑의 명령을 대명령 (Great Commandments)으로 부르며 중시한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원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43-44에서 원수사랑을 명령하신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수준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의 경험치와 가능치를 넘어서는 온전한 사랑임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기독교는 인간이 모든 사회적 관계속에서 인격적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가르친다. 한 편으로는 개개인의 인격적 주체성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존중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사랑으로 서로를 위한 삶을 실천하되 예수님이 보여주신 원수사랑의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기독교적 공동체는 각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며, 또한 각 개인이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서 인간의 주체적이며 관계적인 참된 본성을 발견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IV. 삼위일체 공동체성의 현실적 모델인 가정의 공동체성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인간 공동체가 있다. 그 하나가 가정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다. 창세기 1장 22-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페리코레스스의 관점에서 위 본문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즉, 아담은 동물이나 식물들 가운데서 자신에게 맞는 인격적 교제의 대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의 몸에서부터 이브를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이브가 아담의 몸의 일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아담과 이브가 본질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성을 타고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가 이성(異性)으로 창조되었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 또한 아담과 이브가 본질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두 인격체는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결합을 통해서 자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가족관계는 본질적으로 관계적 공동체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는 삼위일체와 인간가족의 연관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신학적으로 진술한다:

모든 인간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표면화될 수 있는 가족 안에서 태어난다. 하나님은 위격들의 연합이며 공동체이고, 가족은 사랑과 연합 위에 세워진 인간 공동체의 근원적 표현이다... 아이는 그 둘 사이에 태어나 남편과 아내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바꿔게 하고 그 둘을 연합시킨다. 남편과 아내는 자신 밖으로 나와 그들 자신을 뛰어넘는 어떤 것, 즉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의 관계의 열매인 자신들의 아이에 집중한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복된 삼위일체의 - 가장 풍부한 것 중의 하나인 - 형상을 가진다. 가정에는 사람들의 독특성이 - 남편은 아내가 아닌 것처럼 - 있다. 가정 내에서의 각자는 자율성과 적절한 역할을 가지면서도 사랑과 같은 필수적인 연대에 의하여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관계 속에는 생명이 있어서의 한 연합이 있다. 즉, 셋은 셋으로 남아있으며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된다. 가정의 통일성은 복된 삼위일체의 그것과 유사하다. 통일성은 각 사람이 타자를 향하여 나아감과 동시에 동일한 생명의 공유와 사랑의 표현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인식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인식과 같다.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되게 한다. 유비적으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현한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하나되게 한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위격들과 인간을 하나되게 하는 신적인 위격인 성령을 '연합하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¹¹⁾

보프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적 존재양식을 인간 가족에게 부여하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삼위일체와 세 가족의 본질적 유사성을 설명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관계적 형상(relational image of God)을 인간의 가족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삼위일체 교리의 정립에 크게 공헌한 닛사의 그레고리가 아담과 이브와 아들 셋(Seth)을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비유로 사용한 것은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해와 빛과 열의 비유, 혹은 물과 얼음과 수증기, 인간의 정신과 기억과 의지 등 삼위일체를 비유하는 여러 비유들이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그레고리의 가족의 비유는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인 상호보완적인 존재양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비유가 아닐 수 없다.

가정이 하나님의 공동체적 형상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에서 참된 인격적 관계성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족 경험 속에서 확인된다. 가정 안에서

11) 리오나르도 보프, 『성삼위일체 공동체』 (서울: 크리스찬 헤럴드, 2011), 72.

가족들은 여전히 서로 헌신한다. 밖에서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수 많은 사람들이나 범죄자들조차도 자기들의 가족을 아끼며,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 물론 가족이 서로 미워하고 살인하기까지 하는 파괴적인 가족관계도 있지만, 우리는 아직은 이러한 예들을 가족 구성원들의 인격성의 결함으로 인한 예외적인 일탈행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V. 삼위일체 공동체성의 현실적 모델인 교회의 공동체성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동체이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8).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떠한 사회적 모습을 했는가?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初代教會, the early church)는 각 구성원들이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들의 소유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교제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공동체에 들어오는 그런 공동체적 교제의 공동체였음을 성경본문은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초대교회 (初代教會)의 이러한 교제의 삶 속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셨다는 것이다. 사실 교회가 시작된 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시작했다기 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랍게 임하시는 체험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다른 신자들과 더욱 깊은 사랑과 교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놀라운 교제공동체로 발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교회를 위한 사랑에서도 확인된다. 요한복음 17장 21-23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공동체에 대해 가지고 계신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이 기도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리를 사랑과 진리로 하나되게 하고, 더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의 연장선상에 있는 특별한 공동체로 만드 시려는 계획이다. 이것이 오순절 절기에 성령님의 임재체험을 통해서 시작된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것이다.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2:13-22 본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적 관계성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세상의 적대적 관계성을 변화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당시 로마의 가장 번성하는 교역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의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인간의 원수됨을 소멸하시고, 두 사람이 한 성령님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도 타인도 나그네도 아니며 오직 교회와 성도들의 동등한 구성원이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그는 담대히 증거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교제는 모든 인류를 향해 개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인간사회 속에서 실천하고 회복하는 전략적인 수단으로써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회의 본질이 이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사랑의 교제에 있다고 강조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에밀 브룬너(Emil Brunner)가 있다. 브룬너는 교회를 교제(koinonia, communion)를 위해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인 에클레시아(ekklesia)라고 정의한다.

앞에서 소개한 신학자 보프 역시도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이해한다: “교회는 본래 믿음과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시된 일치와 사랑, 즉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요 17:21)처럼 그 말씀대로 살기위해 노력하는 사랑의 공동체이다.”¹²⁾ 더 나아가 보프는 교회가 삼위일체를 닮아가려고 노력할 것을 권면하면서 삼위일체의 인격적 결합이 교회의 공동체성의 모델이 됨을 강조한다: “교회가 독특한 세 위격의 일치와 한 하나님이 됨으로 인한 삼위일체적 연합인 영원한 샘에서 마시면 마실수록, 교회는 교회의 내적인 분열을 보다 더 잘 극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성직자와 평신도간의 권위적 구별이 없어지고, 삼위일체의 통치를 위해 사역하는 진정한 형제사매, 즉 하나님의 한 가족 안에서의 평등한 관계의 공간이 될 것이다.”¹³⁾

VI. 삼위일체 공동체성이 사회양극화에 제시하는 함의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기독교에게 있어서 인격적 주체성에 기반한 사랑의 교제와 공동체성이 인간성과 사회성의 본질을 이루고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인격적 교제는 삼위일체의 본질을 이루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인간의 가족과 교회의 원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었다. 주체와 타자성, 사회성은 삼위일체적인 공동체성에 비추어 보면 실체론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의미를 벗어나고 전혀 새로운 존재론적 의미를 갖게 된다. 주체는 타자성을 인정하고 섬길 때 비로소 자신의 인격성을 실현하게 된다. 사회성은 더 이상 계약적인 것이 아니며, 개인의 존재양식으로써 근본적인 중요성과 의미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이러한 공동체성이 오늘날 양극화로 치달고 있는 우리나라와 인류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적용점을 가질 수 있을까? 필자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시사점과 적용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2) 리오나르도 보프, 『성삼위일체 공동체』 (서울: 크리스찬 헤럴드, 2011), 77.

13) Ibid., 78. 보프는 더 나아가서 세속화된 사회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남아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사회 안에서 작동하는 경제적 힘과 정치적인 힘, 문화적인 힘들이 서로 간에 얽혀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들의 흔적을 발견하며, 또한 이것은 인간이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실현해 나가야 할 책무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보프의 이 주장은 세속적 사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에서 이탈한 것에 강조점을 두어 온 기독교 신학의 전통에서는 벗어 나지만, 타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서 인간사회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의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프의 제안을 통해 우리는 신국(神國)과 세속왕국의 잘못된 2원론적 인식을 벗어날 수 있다.

1. 인격적 주체성과 자발적 공동체성의 동시적 조화

기독교의 삼위일체교리와 가정과 교회가 시사하는 중요한 한가지 사회적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주체성과 사회적 공동체성의 동시적 조화의 원리일 것이다.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교리는 특정한 공동체성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삼위의 개별성과 일체의 연합성의 균형과 조화이다. 삼위일체는 주체성과 공동체성 모두를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주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동체성을 희생하지도 않으며, 공동체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개인의 주체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0:17-18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들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은 아버지의 계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전 기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조금 나아가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39).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자신이 체포되고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될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고백함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선택권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있다.

삼위일체가 보여주는 이러한 균형은 이것은 인간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한 공동체성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바람직한 공동체는 구성원의 주체성과 자발성이 공동체성과 함께 강조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사회가 개인의 자유와 고유성과 주체성을 무시하게 되면 인격적 관계성은 파괴되고 개인은 소외된다. 예를 들어서 사회나 집단의 통일성을 앞세우는 전체주의 (totalitarianism)는 각 개인의 자유와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말살하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체제이며 바람직한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

반대로 개인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개인들이 모인 사회라면 그 사회는 의미있는 통일성과 공통성을 추구할 수 없게 되며 이 경우에도 공동체성은 파괴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경우에 파괴되는 것은 비단 공동체성만이 아니다. 개개인 역시도 과도한 개인의 주체성의 강조를 통해서 자신의 인격적 본성의 파괴를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개개인을 인간되게 만드는 인격적 속성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개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본성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격성은 사랑이다. 사랑은 자신을 다른 인격체에게 조건없이 제공하는 행위이다. 다른 인격체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고유성과 자유를 희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본질적 중요성을 망각한 존재나 거부하는 체제 역시도 비인격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개인의 개별성이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소외를 낳으며 비인간적인 것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의 인격적 공동체 원리는 역사상의 다양한 사회구성의 이데올로기들과 체제가 인간의 요구에 얼마만큼 맞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시금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시사점을 우리는 얻게 된다. 이데올로기들을 형평성이나 효율성이나 합리성에서 평가하고 판단할 수많은 논리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가 제시하는 인격성과 공동체성의 균형이라고 하는 요청은 하나의 궁극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적 기준에서 보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자본가들의 경제적 독식을 저지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면서 사회 전체의 평등성, 즉 경제적 공동체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원리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인간을 이익집단과 계급으로 규정하고, 집단간의 투쟁을 본질적인 인간의 속성으로 규정하는 면에서, 또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의 주체성이나 인격성을 말살하는 면에서 기독교의 원리에서 벗어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도 기독교적 기준에서 보면 일부만이 긍정적이다.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과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가 강조하는 인격적 주체성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보장하면서 사회전체의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안정을 도외시하는 면에 있어서는 기독교 공동체성의 원리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2. 인간의 본성적 결함에 대한 인정

기독교의 성경과 신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공동체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타락과 죄성에 관한 지적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공동체적 형상을 받은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독교는 명확히 가르친다. 그러나, 기독교는 또한 인간의 범죄함과 타락으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형상을 상실했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특별히 필요로 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특별히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야 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화(聖化)의 과정을 걸어야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거꾸로 표현하면, 인간의 본성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으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성화되어가는 성숙한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본성적인 결함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모든 사회적 관계나 공동체성의 추구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적 결함 - 인간의 죄성 - 을 고려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놀랍게도 많은 사회적 운동에 이러한 상식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들의 본성적 결함과 죄성을 도외시하는 가운데서 사회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문제가 제도에 있다고 주장한다. 혹은 경쟁하는 집단에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제도나 체제를 바꾸면 사회문제는 해결되고, 자신들의 주장을 반대하는 집단이 제거되면 살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보자.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고 그들의 소유를 박탈하여 분배하면 세상이 더 평등해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경제적 공동체가 실현될 것이며, 이 공동체는 인간의 근원적 소외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제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적 혁명을 수행하는 지도자들이 새로운 특권 기득층 계급을 만들어 냈으며, 평등과는 거리가 한참 먼 독재사회를 만들어내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기심과 권력욕을 간과한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고전적 자본주의자들이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자들은 정부가 시장을 내버려두면 시장원리에 의해서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국적 자본가들의 힘이 더욱 강해지고 빈부차이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제는 자본가들의 힘이 정치와 국가와 국제관계를 좌지우지하는 금권정치(金權政治, plutocracy)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이나 경제계 지도자들은 오늘날 수많은 경제적 위기의 바탕에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근원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인간의 본성적 결함, 즉 죄성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음을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적 결함에 대한 인식은 양극화된 사회의 문제에 어떤 실용적 시사점을 주는가? 그것은 첫째로, 어떤 지도자나 제도도 모두 문제점과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지도자도 이기심으로 인해서 온전히 공정할 수 없으며,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라도 구성원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의해서 왜곡되고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과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나 국제관계를 들여다보면 극단적인 갈등과 양극화의 주범은 자신만이 정당하다는 근거없는 도덕적 오만임을 볼 수 있다. 한 정당이 자신의 정당을 선으로 규정하고 다른 정당을 악으로 규정할 때, 과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규정한 것처럼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악으로 규정할 때, 그것은 근거없는 오만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이러한 겸손한, 상대주의적인 자기인식은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하며, 타인의 잘못을 관용하게 하며, 타인의 입장을 반영하게 한다.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근본적인 이기심과 결함을 인정하는 정치집단이 상대방을 파괴하고 제거하려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을 정당화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자신의 동기나 계획이 지닌 상대성과 약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방성은 상생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고용주와 고용인들은 자신의 이기심과 한계를 깨달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된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대립상황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것도 양측 지도자들의 정당화할 수 없는 오만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자신의 판단에 오류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현재의 형식적인 평화협상은 진척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인간의 이기심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입장들을 절대화하여 관철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를 인식하고 견제하고 권력의 집중을 막을 균형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이러한 생각을 일생동안 발전시켰다. 그의 입장을 흔히 기독교적 현실주의(Christian Realism)이라고 부르거나 그리스도교 실용주의(Christian Pragmatism)이라고 부른다. 기독교적 현실주의는 개인이나 집단, 혹은 국가간의 냉엄한 경쟁과 대결을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행동하자는 현실주의 관점과는 다르다. 니버가 제시하고자 했던 것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죄성과 현실의 모순을 인식하면서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었다.¹⁴⁾

니버가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의 예를 들면, 니버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로 정의의 실현을 제시했다.¹⁵⁾ 그리고 니버는 인간의 집단적 이기심을 제어할 가장 현실적인 정치체제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한다.¹⁶⁾ 니버가 제시하는 방향은 기독교가 가진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중적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 편으로 인간의 사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 공동체성을 부여받았으며, 그것을 추구하고 또 향유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인간의 사회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이 부여하신 공동체성이 깨어짐을 경험하였으며 그것을 회복해가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사이-존재인 인간은 그 깨어진 사이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기독교 현실주의는 이 회복과정에서 있는 존재인 인간사회가 취할 태도와 방향을

14) 니버의 입장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한 편으로 니버는 낙관주의나 이상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적 이상을 포기하는 비관주의나 냉소주의를 거부했다고 할 수 있다. 리처드 헤리스, 『라인홀드 니버』(안태진 역, 서울: 비아출판사, 2016), 83-84.

15) 라인홀드 니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이한우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04). 이 책에서 니버는 개인은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집단적으로는 이기심을 제어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덕의 사회적인 목표를 아가페 사랑의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실현에 두었으며,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강제력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16) 라인홀드 니버, 『빛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이한우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5). 니버는 처음에 자유주의적 기독교인으로써 사회개혁운동에 참여했으나, 곧 인간의 보편적이고 본성적 결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결과 니버는 정치적 지도자들의 이기심을 견제하는 정치적 시스템으로써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의 체제를 통해 사회가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민주주의를 옹호했으나 민주적 과정이나 타협의 정치에 대한 낙관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과 권력욕을 견제하는 권력분립의 안전장치로써 옹호했다.

잘 보여준다.

3. 원형적인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할과 희망

마지막으로 기독교적 공동체성이 제시하는 한가지는 인간의 타락과 죄성으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왜곡되고 파괴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깨어지고 양극화되고 대립하는 사회에서 탄식하거나 이러한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회 속에서 참된 공동체성의 보존과 회복과 확산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한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17b)”고 말씀 하셨다. 이것은 노동이 금지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 병든 인간과 관계성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당신의 참된 공동체성을 부여해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제를 열어서 인간의 깨어진 공동체성을 회복해 오셨다.

이것은 삼위일체가 제시하는 원형적인 인격적 공동체성이 하나의 이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현실적 가능성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공동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역사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참된 인격적 공동체성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취해가시는 인간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해 가신다. 이렇게 보면 니버는 이뤄질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윤리를 종말에 가서야 이뤄질 불가능의 가능성 (impossible possibility)로 보았으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공동체성의 회복에 대한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 속에서 이러한 실현을 꿈꾸게 한다.

하나님이 인간의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참된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힘과 희망이 된다. 사도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13).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에 대한 소명을 주셨고 그를 움직이셔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또한 다음과 같은 고백도 기록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28-29). 바울은 자신의 노력 이전에 자신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사회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큰 소망이 될 수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이기심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며,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사회의 미래는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과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인류의 1/3에 해당하는 24억의 인류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사랑하시며, 인간사회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여 고통받으시는 분이며,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역사와 악을 심판하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지구촌의 다른 주민들에게도, 또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안심과 위로가 될 수 있으며, 어찌면 현실적 소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VII. 요약과 결론

기독교의 하나님의 존재양식인 삼위일체는 특별한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각 위격이 지닌 인격적 주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자발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복종하는 가운데 참된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인격적 사랑을 통한 연합의 존재양식을 잘 설명하고 있는 현대신학의 관점으로 사회적 삼위일체론 신학을 꼽을 수 있다.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동방교회의 삼위일체 신학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하나님의 각 위격이 가진 인격적 주체성과 자유로부터 자발적인 섬김과 복종을 통한 일체적 연합을 설명한다.

기독교는 또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러한 삼위일체적 사랑의 존재방식이 인간에게 부여되었으며, 인간은 이와 같은 인격적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사회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증거한다. 인간의 사랑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두가지 대명령이다. 이 사랑의 명령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독교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로 가르친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인간 공동체로써, 남성과 여성의 상호보완적 관계성을 통해서 서로를 온전케 하며, 자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양식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하나의 모형이 된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의 양식을 극복하고 형제와 자매로서 진정한 사랑과 나눔과 예배의 공동체 양식을 실천하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이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적대적으로 갈라진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들 안에서도 사회적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하는 촉매제로 사용하신다.

기독교가 증언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인격적 사랑의 공동체성은 오늘날 인류와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극심한 양극화와 대립의 문제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로, 기독교가 제시하는 개인의 주체성과 사회적 공동체성의 동시적 조화의 원리는 모든 사회적 관계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공동체성의 방향을 제시하며, 또한 이 원리는 모든 사회적 관계와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판단기

준과 시금석이 된다.

둘째로, 기독교는 인간 전체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인간성이 훼손되고 근본적 결함을 가지게 되었음을 예언자적으로 증거한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기독교의 분명한 증거는 인간의 사회성이나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모든 낙관적인 견해들을 정당하게 거부한다. 동시에 기독교는 사회 지도자들과 제도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겸손과 관용을 요청하며, 대화적이고 상생적인 자세를 요청한다. 더 나아가 기독교는 권력을 나누고 상호견제하는 민주적 권력분립의 제도를 통해 결함 있는 인간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실적 대안을 요청한다.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인간의 사회가 인간의 죄성에 대한 현실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서 겸손과 상호견제를 통한 온전한 인격적 사랑의 공동체성을 지향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들이 그 길에서 참된 모범이 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셋째로, 기독교가 제시하는 원형적인 인격적 공동체성은 하나님의 창조원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방향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공동체성의 회복을 성 삼위 하나님이 사회 속에서 주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의 사회를 삼위일체적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노력이 무너진 곳에 서있는 인류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